

휠체어를 굴러라! 계단을 오르자!

수원 척수장애인 모임 '함께 가는 우리'

그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러나 꿈에도 생각 못한 시련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려야 했을까. 그들에게 세상으로 향한 계단은 높기만 하다. 사고를 당하기 전보다 몇배의 힘과 고통이 따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방안을 뛰쳐나왔다. 그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휠체어를 굴리는 팔뚝엔 볼끈 힘줄이 솟는다.



신창호 씨.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마련해 준 구두가게에서 재활의지를 다진다.

저기 계단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씩 오르는 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두계단씩 성큼 바쁘게 오른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채로는 한계단도 어렵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휠체어로 오를 수 있는 시설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세상으로 향한 계단'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길을 막고 버티고 있다. 두 다리로 걷고 뛰었던 지난날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곧 도리질치며 현실로 돌아온다. 포기할 수 없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계단을 오르리라 마음을 다잡는다.

꿈엔들 생각 못한 시련, 좌절 그리고 재활

신창호(33)씨도 몇년 전에는 젊은 혈기답게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했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경제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그는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중견 경영인의 꿈을 키우며 누구보다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에게 벼락처럼 시련이 찾아왔다.

'뺑소니'. 그는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밀이 허전함을 느꼈다. 척수가 다쳐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반쪽만을 느낄뿐 나머지 반쪽은 처연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그는 절망했다. 자신에게 던져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가 꿈엔들 이런 상황을 예상할 것인가.

퇴원 후 그는 방안에 틀어박혔다. 서른두 살 때까지 그렇게 4년을 보냈다.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끝낸 것은 또 하나의 시련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다. 장애인이 된 장남 때문에 생긴 명을 가슴에 지닌 채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포자기 상태로 흘러보냈던 지난 4년이 미치도록 부끄러웠다.

탈상을 하고 그는 지난해 2월 재활의 의지를 품고 부친상을 지냈던 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그곳에서 4월까지, 그 후 3개월간은 외래진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휠체어를 타는 훈련은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팔 힘이 약해 바퀴를 몇번 돌리면 금새 힘이 빠졌다. 송글



송글 맺힌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앙다문 입술을 적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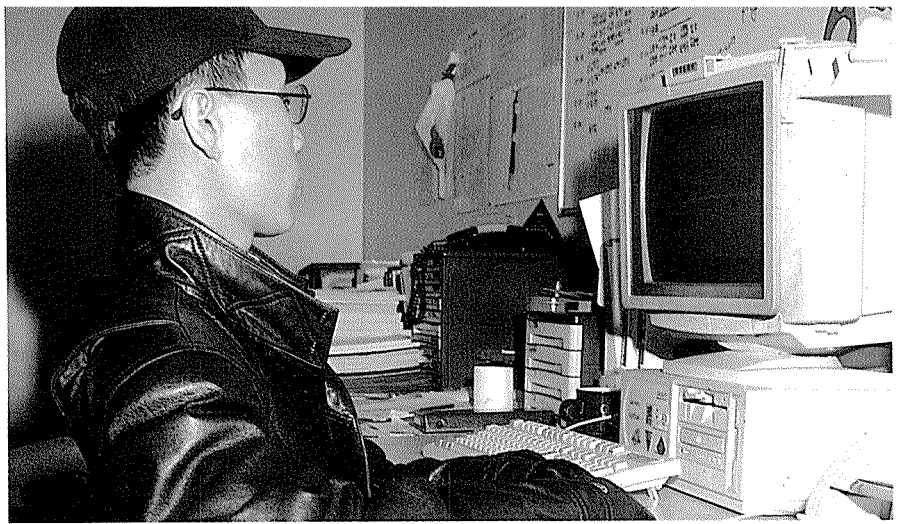
재활치료를 끝내고 그는 생활전선에 나섰다. 장애인 취업현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직장보다는 조그맣게 혼자할 수 있는 일을 수소문했다. 우선 구청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시청을 가보라고 했다. 시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니 다시 구청으로 가보라고 했다. 잣 배운 휠체어를 굴리고 택시를 타며 그는 구청, 시청, 다시 구청을 왕복했다. 한여름 따가운 햇살이 알갭게 내려쬐었다. 힘이 들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치료를 받으며 다졌던 재활의 의지를 떠올렸다.



보람이 있었는지 수원 장안구청에서는 구청 앞 구두닦기 영업을 허가해줬다. 삼복더위 내내 역시 같은 장애인에게서 구두닦기 기술을 배웠고 지난해 9월 구두약처럼 새까만 얼굴을 하고서 드디어 구청 앞에 구두닦기 가게를 열었다. 거의 5년만에 가져보는 자기일. 그는 열심히 일했고 얼굴은 사고가 나기 전 의욕에 찬 표정을 찾아갔다. 그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상냥한지 어떤 손님들은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할 정도였다.

휠체어를 뽕뽕 굴리며 절망을 견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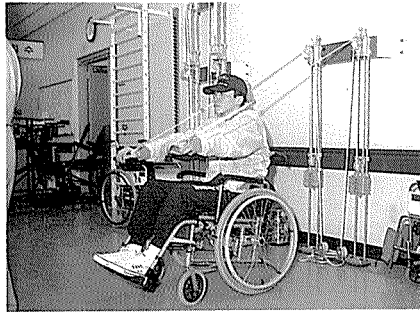
가게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생계문제에 숨통이 트일 무렵, 그는 목적의식적인 삶을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동료 장애인(友)들과 서로 도우며 재활의 새삶을 꾸리고 싶었다. 그는 고향 같은 이주대 재활의학



▲고우현 씨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20쪽 분량의 소식지를 성치 않은 손과 컴퓨터로 만든다.

◀ "방안을 탈출하자", 지난 1월 20일 '함께 가는 우리' 창립대회 모습.

▼ 휠체어는 다리와 같다. 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팔 힘을 길러야 한다.



과를 수시로 드나들며 장애인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했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손도 제대로 쓰질 못했다. 그러나 재활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해보였다. 더디지만 휠체어를 돌리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신씨의 의견에 기꺼이 동의했다.

고우현(27)씨는 무엇보다 신씨의 밝고 당당한 표정과 형처럼 친근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툴툴이 익힌 컴퓨터 실력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와 함께 뜻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고씨 역시 한창 때인 23세 때 열차사고로 척수를 다쳤다.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 워낙 큰 사고라 그는 손까지 완전하게 쓸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장애를 입었다. 바텐더로 일했던 그는 더 이상 카테일을 만들 수 없게 되었고 좋아하던 여행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절망의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비교적 빨리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때

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다시 병원을 찾았고 그때 신창호 씨를 만났다.

뜻이 서로 모아지자 들은 동료 장애인들을 설득했고 모임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씨가 회원모집 및 섭외를 맡았고 고씨는 컴퓨터를 이용해 모임결성에 앞서 소식지 제작에 주력했다. 소식지는 현재 두 달에 한번씩 나오고 있는데 고씨가 성하지 않은 손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만든 것이다. 내용이나 편집이 전문가 뽕칠 정도다.

이런 준비작업을 통해 척수장애인 모임인 '함께 가는 우리'는 올 1월에 정식으로 발족했다. 세상으로 향한 계단 앞에 서로 어깨동무하며 나란히 선 것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신창호 씨는 모임 결성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방안을 탈출하여 우리 모두가 활동함으로써 장애, 그 장벽을 허물어 육체의 장애는 장애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부터 보여주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함께 방안을 탈출하자. 세상을 오르자"

'함께 가는 우리'는 모임의 목표를 재활과 봉사 초점에 맞췄다. 회원의 재활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라는 뜻에서 봉사활동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차량봉사대는 이런 취지에 맞춘 활동계획이다. 재활훈련이 덜 된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한편 지역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회원들의 재활돕기 프로그램은 갖 사고를 당해 실의에 빠져있는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하는 상담과 사회적응 훈련의 하나

사랑나누기를 함께 할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지는 훈훈한 빵내음이 사회 곳곳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마음이 어우러진 사회, 그 사회는 분명 건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조그만 지원이 건강한 사회를 앞장길 것입니다.



후원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 일반회원 매달 2,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특별회원 매달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
- 잔조회원 비정기적 또는 일시적 기부금
- 봉사회원 자원 봉사자

이렇게 후원하시면 됩니다

- 기간은 1년 이상
- '함께 가는 우리'의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1. 아래 회원신청서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 월간 베이커리 독자엽서 뒷면에 부착해 보내주시고,
2. 후원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 227-01-0235-148
함께 가는 우리(신창호)
 - 제일은행 : 623-20-093175
함께 가는 우리(신창호)

알림

'사랑나누기'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경수/서울시 구로구 독산4동 1023-24
- 김보하/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1동 635-1
- 우철문/경기도 의정부시 가농3동 700-19
- 홍진현/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141-3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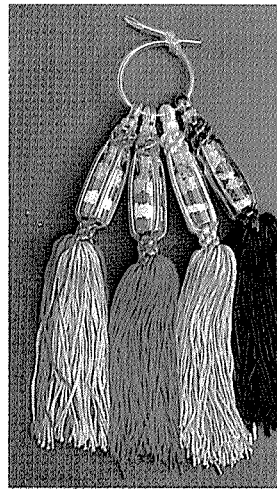
- '함께 가는 우리' 주소
 - ☎ 441-11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829-33
 - ☎ (0331)221-1815

후원신청서

성명			
성별	남	여	연령
주소			전화
직장			전화
후원금			후원단체
송금은행			
기타			

로 운전면허 취득 교육이 있다. 운전은 신씨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인데 활동성 보장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 어느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재빠르게 뛰면서 비를 피했지요. 그러나 저는 펴 수도 없고 앉은 상태에서 비를 훌쩍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때 결심했어요.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그리고 곧 면허를 땀지요.”

‘함께 가는 우리’는 직업재활이 재활의 완성이라 보고 회원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 이템은 열쇠고리 공예인데 현재 판로 개척에 분주하다. 판로는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지만 공동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회원들이 만든 열쇠고리. 판로도 문제지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급선무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신씨는 스스로 돕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의욕에 차 있다. 그가 힘껏 굴리는 수레바퀴에 힘이 배어 있다. “남(男)이라는 한자를 보면 입 구(口), 열 십(十) 즉 남자는 열 사람의 몫을 한다는 뜻을 읽을 수 있어요. 몸뚱이 반이 망가졌으니 10명 몫은 못하더라도 5명 몫은 해야겠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후천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88%를 차지한다고 한다. 누구도 남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함께 가는 우리’가 굴리는 휠체어에 힘을 보탤 때 그들은 세상으로 향한 계단을 성큼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절망의 시련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는 ‘재활보험’이 되기도 한다. ☐

〈글/손인수〉